

지자체 절감 지원... 기업 참여의지 부족 산학연 컨소시엄 성과 '미흡'

광주, 지난해 추진 과제 27건... 전국 꼴찌 수준

중소기업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지역의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이 광주시 지원부족과 기업들의 참여의지가 미흡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 애로기술 및 신제품·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형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산학연사업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추진과제와 참여업체, 성과건수 등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대학은 2004년 4개→2005년 4

개→2006년 3개, 참여업체는 각각 45개→40개→27개, 과제는 45개→40개→27개로 하향세를 보였다.

추진성과도 지적재산권 출원 및 획득 2004년 29개→2005년 16개→2006년(올 4월 종료), 공정개선 26개→24개, 시제품 및 상품화 40개→38개로 역시 감소했다.

특히 2006년 광주지역의 추진과제수는 울산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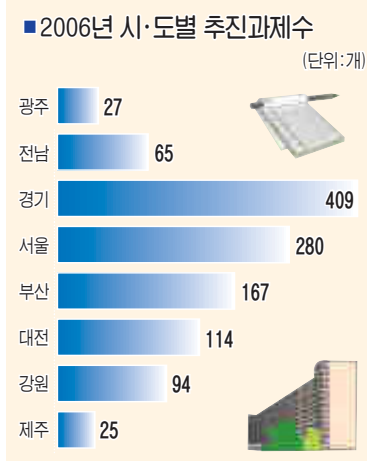
추진과제수는 경기도(409개), 서울(280개), 부산(167개), 경북(159개), 충남(143개), 충북(142개), 전북(131개), 경남(122개), 대전(114개), 강원·인천(각 94개), 대구(68개), 전남(65개), 광주(27개), 울산(26개),

제주(25개) 순이었다.

이처럼 광주지역 산학연사업이 부진한 것은 광주시의 매칭펀드 지원자금이 3년째 3억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학연사업 사업비는 정부 50% 이내, 지자체 25% 이상, 업체 25% 이상으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2006년 광주시의 정부지원금은 5억2천100만원에 불과해 경기도(66억900만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신규 추진사업이 너무 많아 산학연사업 등 기존 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면서 "2007년 사업은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증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참여의지 부족도 사업부진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하남산단내 A업체 대표는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업체와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면서 "그러나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산학연사업에 눈돌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부대 J교수는 "선진국 사업의 경우 차세대 기술을 대학에서 얻는다고 말할 만큼 산학연사업이 활성화돼 있는 것을 인식,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와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현대삼호중, 32만급 FPSO 진수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사장 김수현)은 지난 28일 32만급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설비(FPSO)의 진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길이 310m, 폭 61m, 깊이 30.5m로 건조된 FPSO는 13개의 카고탱크에 총 20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창업농에 농지 최대 5ha 임대

농림부, 올 영농규모화 사업 3,400억 지원

올해부터는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창업농에게도 정부가 땅을 빌려준다.

농림부는 창업농으로 선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농업인도 올해 농지임대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5ha까지 농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

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작년까지 농지임대차,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할 등 영농규모화 사업이 쌀 전업농 위주로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밭고 유효한 창업농의 쌀 생산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영농규모화 사업은 경영규모 6ha 이상의 쌀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부는 2013년까지 이들이 쌀 재배면적의 절반 가량을 맡아 재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올해 영농규모화 사업에는 농지매매 2천100억원, 농지임대차 1천273억원, 농지교환·분할 27억원 등 총 3천4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지매매는 비용이나 전입·은퇴·영농규모 축소등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여 전업농 육성대상자에 파는 것이고, 농지임대차는 비슷한 성격의 농지를 장기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농지교환·분할은 농지를 서로 맞바꾸거나 합쳐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의 한국농촌공사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시간은 5시간.

한편 지난해 1월 개통됐던 광주-포천 노선은 1월 2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출발시간은 포천행 오전 8시30분, 11시이며, 광주행은 오후 3시, 5시이다. 요금은 2만5000이며 소요시간은 4시간30분.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밀수·마약 철저히 차단"

손정준 신임 광주본부세관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선진 통상국가를 실현하는 관세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일 부임한 손정준(59) 광주본부세관장은 "상실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액탈루·저가신고 등 불법실 납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세관장은 특히 "규제완화와 통관절차를 약용하는 밀수나 부정무역 방지에 조사역량을 집중

하고, 마약·테러물품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의 반입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여 광주·전남지역이 마약과 테러의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심겠다"고 덧붙였다.

경북 김천 출신인 손 세관장은 1978년 관세청에 들어와 관세청 기획관리관, 심사정책국장, 서울본부세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현대·기아차 국내 판매가 대당 평균 100만원 올라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대당 평균가격(ASP)이 100만원 올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대당 평균 국내 판매가격은 1천890만원, 1천650만원으로 2005년 1천790만원, 1천550만원에 비해 5~6% 상승했다.

양사의 이같은 판매가격 상승은 오퍼스·그랜저·NF쏘나타 등 중대형고가 차량의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소형차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대차의 대표 소형차인 클릭·베르나·아반떼 등 3개 차종의 판

매비중은 2004년 37.5%에서 작년 35.3%로 줄어든 반면 쏘나타와 그랜저 비중은 15.5%에서 20.3%로 높아졌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2002년 평균 판매가격이 1천46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년새 440만원이나 값이 뛴 셈이다.

원화절상과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케팅 목표를 중대형차에 맞춘 현대차는 올해 평균 수출가격을 1만3천800달러로 잡았다.

반면 기아차는 수출 목표가격을 1만3천500달러로 오히려 0.3% 낮췄다.

/연희스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채로운 무한재능 개성으로
세기가질단보청기 기술에 고도투입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계스타·세기보청기